〈화엄경〉의 진수 고스란히 담아



화엄경청량소
청량징관 지음
반산 스님 역주
담앤북스 펴냄
각권 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엄경청량소〉는 〈화엄경〉을 중국 청량 국사가 해석하고 주석을 단 것으로, 자세한 해설과 방대한 분량으로 화엄경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경전이다.

이번 출간된 반산 스님의 〈화엄경청량소〉는 봉은사 소장 목판 80권 화엄경소초회본을 원본으로 삼아 직접 원문을 입력하고 소와 초를 번역했으며, 더불어 스님의 견해를 덧붙였다. 스님은 직역(直譯)을 원칙으로 원본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 주고자 노력했다.

쌍계사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하고, 현재는 경남 양산 원각사 주지인 반산 스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번역 불사에 전념해 7처 9회 39품의 모든 번역을 마쳤으며, 지난해 11월 제 1회 적멸도량 법회와 제 2회 보광명전법회분 출간 이후 금번 제 3회 수미산정법회를 펴냈다.

봉은사 소장 목판본은 원래 조선 숙종 15년(1689)에 임자도서 발견한 성총 스님이 판각 불사를 통해 유통시킨 징광사(澄光寺) 판본이 그 원본이었다. 그러나 1770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영조 50년(1774)에 설파상언(雪坡尙彦)이 판각한 영각사 판본이 유통됐는데, 이 판본도 역시 1950년 전란으로 없어졌지만, 그 경본만은 남아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철종대(1855-1856)에 영기(永奇) 스님이 각인(刻印)한 봉은사판이 현존하게 되었다. 이 봉은사판은 영각사판을 복각(復刻)한 것으로 중간에 45장을 보충했다 한다. 이것이 그동안 강원 대교과(大敎科)의 교재로 사용된 유일한 현존판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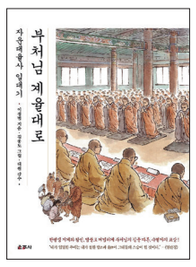
봉은사 소장 목판본에 새겨진
청량국사 〈화엄경수소연의초〉
반산 스님 20여 년 번역불사 후
최근 8 · 9권 잇달아 출간해

한편 〈화엄경청량소〉를 지은 청량국사는 중국의 성당(盛唐) 시절 화엄종을 발전시킨 대종장으로 본래 회계(會稽) 사람으로 성은 하후씨(夏候氏)요 자는 대휴(大休)이며 청량은 덕종이 내린 법호이다.

7세에 출가해 우두혜충(牛頭惠忠, 683-769), 경산도흠(徑山道欽, 714-792)에 의지해 선을 깨닫고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으로부터 화엄의 법을 이었다. 770년경 오대산 대화엄사서 〈화엄경소〉 저술을 결심하고 다시 세간의 학문을 배워 육예(六藝), 도사(圖史)와 구류이학(九流異學)과 축경범자(竺經梵字), 사위오명(四圍五明)에 이르기까지 널리 열람하더니 건중 4년(783) 집필에 들어가기 앞서 서응을 구하니 어느 날 꿈에 부처님 얼굴이 산마루에 비치어 그 광명이 천지에 온화했다. 국사가 손으로 받들어 입으로 삼켰는데 이로부터 한 번 붓을 내림에 막힘없이 4년 만에 〈화엄경소〉 60권을 완성했다. 이어서 후학을 위해 〈수소연의초〉 40권을 지었다고 한다.

통도사로 출가해 고원명정(古園明正)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강원 졸업(1984) 후 천은사, 불국사, 대승사, 극락암 선원 등 6하 안거 성만했고, 중앙승가대학, 조계종립 은해사승가대학원을 1기 졸업(1999)했다.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강사 역임,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를 역임했고, 봉선사 조실 월운강백에게 전강(2002), 쌍계사승가대학 강주를 지냈다.

자운 율사 일대기 소설로 조명



부처님 계율대로
이정범 지음, 김종도 그림
운주사 펴냄
1만 7천원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각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종단단일계단 전계화상, 동국역경원장 등을 맡으며,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자운 율사의 일대기를 조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계율)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한평생 올곧게 수행한 자운당 성우 대율사. 그의 삶과 수행을 오롯이 소설과 그림으로 담아냈다.

자운 스님은 1911년 강원도 평창서 태어나, 1927년 17세에 해인사서 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1월 4일 해인사 홍제암서 열반하니 세수 82세, 법랍 66년이었다. '眞性圓明本自空(진성원명본자공) 光照十方極淸淨(광조시방극청정) 來與淸風逍遙來(내여청풍소요래) 去隨明月自在去(거수명월자재거)' 라는 임종게를 남긴 다음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명하면서 조용히 입적했다. 해인사 연화대서 조계종 원로장으로 다비식을 거행하였으며, 은행크기의 사리 19과와 녹두크기의 사리 5천여 수가 나왔으나 큰 것만 수습해 이를 해인사, 감로사, 경국사에 나누어 봉안했다.

현대 한국불교 계율의 중흥조

1939년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서 매일 20시간씩 용맹 정진으로 문수기도를 하던 중, 99일째 되는 날에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계척과 '견지금계 불법재흥' 의 감응을 받았다. 그래서 1940년부터 2년여 동안 매일 국립중앙도서관을 오가며 卍속장경에 들어 있는 오부율장과 그 주석서들을 모두 필사하고 연구하였다.

1948년 봉암사 결사에서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 이후 1991년 조계종단 단일계단 수계법회까지, 출 · 재가 10만 불자에게 수계를 주었으며, 조계종의 계단을 확립했다.

조계종 계단 확립한 장본인
계율과 정토수행 일치 제창
매일 10만 번 '아미타불' 염불

한편 스님은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사미율의〉 〈사미니율의〉 〈범망경〉 등 많은 율서를 우리말로 번역, 지속적으로 펴내고 보급했다.

참선 수행에도 혼신을 다한 선사

1929년 범어사 선원에서의 안거를 시작으로 순천 선암사, 해인사, 표훈사, 울진 불영사, 문경 김룡사, 통도사, 울산 학성선원, 금강산 마하연 등서 수선안거 했다. 특히 불영사서는 3년 동안 장좌불와로 결사했으며, 1938년 도봉산 망월사서 용성선사에게 오도송을 읊고 전법게와 의발을 전해 받았다. 해방 후에는 봉암사 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철, 향곡, 청담 스님 등과 함께 한국불교에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켰다.

평생 염불과 예참을 실천한 염불 수행자

스님은 1957년부터 계율과 정토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계정일치행을 제창하였으며, 〈무량수경〉 〈아미타경〉 〈십육관경〉 〈정토심요〉 〈자비도량참법〉 등 정토와 관련된 다양한 경서를 펴내고 유통시켰다. 그 실천으로 해인사서 염불만일회, 서울 보국사서 대동염불회를 결사해 정토수행을 진작시켰으며, 스스로를 상참괴승(常慙愧僧), 즉 항상 참회하는 부끄러운 중이라고 칭하였다. 스님은 열반할 때까지 매일 10만 번의 '아미타불' 고성염불과 〈아미타경〉 48편 독송, 미타예경 1,080배, 염불진언과 일종식 등을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실천했으니, 가히 정토 수행자로서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새로나온 책

매 문구 마지막엔 사구게송 붙여



반야심경주해
하도전 주
김호귀 역
중도 펴냄
1만 5천원

〈반야심경주해〉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반야심경〉에 대해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 살던 하도전(何道全 1319-1399)이 주해한 책이다. 이번에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인 김호귀 박사의 번역으로 중도출판사서 출판되었다.

낱낱의 문구마다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불교를 비롯한 유교와 도교 기타에서 동일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 부연 설명을 가하였다. 그리고 매 문구마다 마지막에는 사구로 된 게송을 붙였다. 그런데 경문의 63문구에 대한 해석은 한자로 번역된 용어에 따른 해석으로서 범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 '바라밀다' 의 경우 '바라' 와 '밀다' 를 나누어 해석한다든가, '심' 을 심장이 아닌 마음으로 해석하는 등 이와 같은 해석의 경향은 명대 이후가 되면 두드러지게 출현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경문에 대한 학술적인 이해보다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반야심경주해〉가 지닌 가치는 불교를 불교의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고 삼교에 드러내놓고 해석함으로써 불교가 지닌 교리의 우월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당시의 불자나 불자가 아닌 사람을 막론하고 식자층에서 어떻게 불교를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방편혜와 실혜의 이해중심 전개



유마경의소
길장 작
김호귀 역
중도 펴냄
3만 2천원

대승경전으로서 출재가를 자유자재하게 넘나들면서 사부대중에게 설법을 펼친 〈유마힐소설경〉에 대한 길장의 주석서 〈유마경의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인 김호귀 박사의 번역으로 도서출판 중도서 출판됐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유마경〉은 비유와 역설의 수사학을 통해 대승불법의 도리를 펼치면서 불교의 수행에 대한 지침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중국의 선종에서는 보리달마로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었고, 초기선종의 시대부터 선종의 문헌에서도 어떤 경전보다도 빈번하게 인용돼왔고, 현재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읽히고 있는 대승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본 〈유마경의소〉는 경전의 원문에 대한 낱낱의 대목마다 주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전개돼 있어서 길장의 학문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편혜와 실혜의 이혜(二慧)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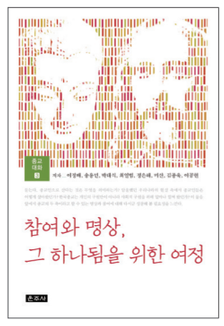
한편 길장은 〈유마경의소〉에 앞서 〈정명현론〉의 저술을 통해 〈유마경〉의 대의를 비롯해 경전 전체의 구성과 의의 등에 대해 저술해 당시에도 사부대중이 〈유마경〉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8년 도서출판 운주사 우수도서 선정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8 세종도서 학술부문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 저/신국판/416쪽/값 22,000원
기본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경제학, 심리학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 소유가 인간 삶에서 지니는 의미와 역할, 소유의 본질과 전개 등에 대해 초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 저/신국판/536쪽/값 27,000원
중국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송대의 시가詩歌를, 선종의 관점에서 회통과 융합이란 주제로 치밀하게 연구한 역작!

다문화 사회와 철학
이정은 · 이병욱 · 정창호 저/264쪽/값 13,000원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성찰하였다!

참여와 명상, 그 하나됨을 위한 여정
이정배 외 저/신국판/256쪽/값 13,000원
사회참여와 개인의 내적 성장(명상)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표적 종교의 전문가들이 이 둘의 상관관계와 공존 가능성을 성찰한 책.

삼계교 연구
수당시대에 선종, 정토종 등 불교종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00여 년 간 영향을 끼친 삼계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총 정리한 역작!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값 35,000원





붓다와 프로이트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양자의 상호융합의 길을 모색한다.
마크 엡스타인 저/윤희조 · 윤현주 역/
33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